文化체험 통해 장애극복의 場 열어

경복대학 부설 재활복지연구소 주관 1박2일 행사

포천시가 주최하고 경복대학 부설 포천 재활복지연구소가 주관한 '2007 포천시 장애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가 지난해 12월 28일과 29일 1박2일 동안 경복대학 및 포천관내 유적지, 아도니스 호텔 등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포천지역에 위치한 문화체험장의 견학을 통해 지역사회를 장애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포천시에 위치하지만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곳을 찾아감으로써 지역 내의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경복대학 이지송 학장은 '자원봉사자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자원봉사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틀 간의 문화체험은 손과 눈의 협응력과 손의 기민성 그리고 손의 감각을 위한 한과 만들기 체험(한가원), 평형감각을 위한 승마체험과 달구지 체험(호스랜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던 아프리카 문화탐방 및 나무 목걸이 만들기(아프리카 문화원), 눈썰매 타기(산정리조트 눈썰매장),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청소년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경복대학 작업치료과 양경희 교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어 봉사단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복대학 부설 포천재활복지연구소(소장 양경희)는 작업치료교육을 통해 꾸준히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재활복지 서비스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과 만들기 체험이 끝난 후 실습을 지도한 한가원 관계자는 "장애 청소년이라 많이 진행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적극적이고 진지한 분위기라 매우 진행이 수월하였다"며 "문화체험 내내 봉사자들이 장애청소년과 함께 하며 안전을 책임지고 활동에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어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은 다솜누리 봉사단의 수많은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 김영자, 김종천, 이중효, 이병욱, 김성남의원이 참석했으며 장미환 포천시 여성복지과장, 박제훈 포천시 장애인연합회장, 김순임 포천시 여성단체회장, 임충남 포천시 자율방법대장, 박명자 성균관여성유도회 회장 등이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가 주최하고 경복대학 부설 포천 재활복지연구소가 주관한 '2007 포천시 장애 청소년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행사가 지난해 12월28일과 29일 1박2일 동안 경복대학 및 포천관내 유적지, 아도니스 호텔 등에서 개최됐다.

지역사회 발전과 안보 위해 노력

영북면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영북면 통합방위협의회(회장 주영국)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1시 영북면사무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배상택 영북면 통합방위 협의회 의장은 "태안반도 복구사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대회산리 은장산 해맞이 행사를 통해 가족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가 되기 바라며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영북면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1시 영북면사무소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영국 협의회장은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정해년도 며칠 남지않았는데 내년도 더욱 발전하는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1일자로 영북초교 교장으로 부임한 민원기 교장의 인사, 1기갑여단장의 정보보좌관 인사, 민원행정관련 양동석 총무계장의 설명이 있었으며 박경환 예비군 면대장의 예비군 사항보고가 있었다.

박경환 영북면 예비군 면대장은 "내년부터 통합방위협의회의에 각 부대 주임원사를 초청하여 민·관·군 관계 유대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마련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석 영북면 파출소장은 "강화도 총기사건등으로 인해 인원이 부족해 정신없이 한 해를 보냈으며 연말연시 일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불편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하며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영북면에서 실제로 발생했으며 피해구제방법이 없으므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영북면 재향군인회장은 "6·25를 바로 알리자는 취지에서 참전유공자회와 재향군인회, 영북농협이 6·25관련 홍보책자 750권을 수령하여 관내 초·중·고교에 전달한 바 있으며 재향군인회는 안보를 중요시하는 단체인 만큼 이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상호 영북종합고등학교장은 "2002년 3월 1일 영북종고 교감으로 발령받은 후 4년동안 교감직을 수행하고 2006년 3월 1일 영북종고 교장으로 발령 받아 2년차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여 학교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놀려는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올해 대학입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반성하고 열심히 해서 명문고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 협조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기환 영북면 119 안전센타장은 "동절기 화재가 빈발하고 화재사망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지도 위주에서 단속위주로 바뀌어, 이전에는 적발당시 시정기간을 주었으나 이제는 과태료를 한꺼번에 부과하므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당부드리며, 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또한 단속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동규 영북노인대학장은 "해맞이 행사가 좁은 공간에서 어두운 시간에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낭떠러지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고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영북면의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
hsd5333@hanmail.net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㉖

우리의 정서를 고려한 북한 토지 소유권 정리 방안

서희석
대성지적GIS기술단 대표이사

침해 토지 문제의 처리는 기본적으로는 소유권 보호에 관한 법적 문제이나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제기되는 소유권 보호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반세기 이상 분단되어 온 두 정치적 실체의 통합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 경제 및 사회 문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법률적 차원에만 국한시켜 접근하거나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경우 논리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의 정서를 고려한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 한국의 북한 토지 소유권 정리 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소유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의 보호와 북한 지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 및 경제 재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 재건 정책에 있어, 투자 장애 요인 제거와 북한 주민의 북한 지역 잔류 유도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침해 토지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북한 주민이 연고를 가진 지역의 토지 구입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북한 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를 위한 토지를 비축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가능케 하는 방안이 선택되어야 하며 또 효율적인 토지 관리 정책 실시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북한 주민의 북한 잔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일 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 주민의 협동농장과 기존의 영농 체제를 유지시켜 생활 터전의 혼란을 막아야 하고 사유 재산권 보장 측면과 법치주의 확보 측면에서 원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아울러 행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각 원칙들은 모두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와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어느 방안을 택하더라도 북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반환 원칙의 적용은 현실적 실현의 가능성이 없음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구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점은 통일 독일로 하여금 국가 소유와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를 사유화하고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원칙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북한의 경우는 지적원부의 파기로 원소유자의 확인이 어렵고 또 원소유권의 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반환 원칙은 그 적용의 가능성이 배제될 것이다. 보상 원칙 또한 원소유권자의 입증이 곤란하고 그 보상의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고 평가된 지가의 보상에 있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다. 다만 과거 일제 시대에 작성된 지적원부가 남한에 남아 있으므로 문중 땅과 같이 원소유자를 찾기 쉬운 땅의 경우에는 반환과 보상 원칙을 적용해도 큰 문제가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무보상 원칙은 단순하고 처리 과정도 간편하나, 법적 현실적 사항의 고려를 도외시하고 있기에 도입에 난점이 있다. 재국유화 원칙은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우리의 정서와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하나의 원칙에 다른 원칙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침해 토지 문제는 법률적 차원 이외에도 북한 지역의 체제 전환 및 경제 재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통일 비용 부담, 농업 정책을 포함한 산업 정책의 재조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 장기적 안목 하에 처리되어야만 통일 후 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일 독일의 경우를 감안하여 이제부터라도 남북한 주민 간의 서신 교환, 이산가족 상봉, 경제 교류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통일의 그날에 양 지역 주민이 느끼는 이질감을 완화하고 경제적 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자율방범연합대, 태안기름유출지역 지원

천리포 방문 부직포 트럭 3대분 마스크 등 전달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30일 태안기름유출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자율방범연합대는 당초 송년회 계획을 취소하고 의미 있는 연말을 맞이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으로 변경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대원 80여명은 기상악화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하게 되자 천리포 현장담당인 태안군청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부직포 1톤 차량 3대분과 마스크, 면장갑 등 장비를 전달했다.

한 자율방범대원은 "기상악화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지 못해 아쉽다"고 전하며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되서 하루 빨리 예전의 아름다웠던 서해안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30일 태안기름유출 지역에 자원봉사활동을 다녀왔다.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사랑 나눠"

육군 5군단, 연말 불우시설 이웃돕기 행사

육군 5군단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연말 불우시설 이웃돕기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소재의 도평 1·2리 노인정을 비롯하여 무의탁 장애인 보호시설인 '소망원'과 6. 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10여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라면 및 귤과 음료수, 주류 등 정성과 사랑이 담김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

특히, 이번 불우이웃돕기는 추운 한파에 어려운 생활고로 마음까지 얼어버린 이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할 수 있어 연말을 맞아 따뜻한 사랑을 주고 받는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부대는 지속적으로 군단사령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6. 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와 불우시설 위문활동, 노인정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목회단상

일류병(一流病)

김창성
내촌감리교회 목사

이제 모든 학교는 새해를 맞이했다. 희망과 기대 속에 입학(入學),승급(昇級)은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희망이고 도전이다.

미국을 방문했을 때 후배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소학교 나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으면 "일류(Best)고등학교에 가요" "고등학교를 나오면?" "일류대학 가요" "대학 나오면?" "소방수가 될 테예요"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한다.

이 아이의 모순은 부모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혼돈(混沌)된데 있다. 일류대학까지의 대답은 부모가 주입한 아이디어고 그 뒤는 자신의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가 부모의 소원처럼 일류대학을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모름지기 또 한 명의 불행한 인간이 탄생될 가능성도 많다.

미국아이들의 희망을 물으면 소방수, 경찰관, 버스운전사 등 실질적이며 대중과 친밀감을 갖는 직업이 많다고 한다. 한국 어린이들에게 물으면 대통령, 장군, 사장, 선생님 등 명령체계의 윗자리에 속하는 직업들이 튀어나온다.

새해 맞고 새학기가 온다. 각급 학교로 진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꿈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높은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빗나간 교육열도 많다. 우리들 대부분이 고질처럼 가지고 있는 일류병(一流病)도 빗나간 교육열의 하나이다. 외국사회는 한국사회와 교육관이나 직업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의 일류병을 자녀에게 전수시키는 것은 무척 위험한 모험이다. 아이들을 비뚤어진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골고루 발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일 자체에 흥미를 갖게 하는 직업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적성이다. 부모의 지나친 기대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겨우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어머니가 목회초년시절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된대요"하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을텐데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정도 목회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

부모자신의 교육관에 있어서 반성할 점이 많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문의) 031-532-2489

설날을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배달

포천우체국 우체국쇼핑상품 최대 20%저렴하게

포천우체국(국장 서영호)은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우체국쇼핑상품을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판매하는 우체국쇼핑 상품 할인 대잔치를 1월14일부터 1월27일까지 실시한다.

우체국쇼핑상품은 엄격한 심사를 통한 각 고장의 우수한 농·수·공산품을 전국 2천800여 우체국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구축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 농어촌경제 살리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할인상품은 총 5천312개 상품이며 할인율은 20%~10%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post.kr)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다량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출장 상담고 가능하다.

포천우체국이 추천하는 포천지역 내고향 특산품으로는 ▶포천잣 21,400원(120g×3캔) ▶포천신궁한과 24,000원(750g, 20%할인) ▶해솔촌기찬쌀 28,000원(10Kg) 등이다.

해촌기찬쌀

우체국 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문의처는 ▶포천우체국(535-2001,2005) ▶포천송우우체국(542-1100) ▶포천영북우체국(532-5100) ▶포천일동우체국(532-3100) ▶포천가산우체국(544-2000) ▶포천내촌우체국(532-2501) ▶포천관인우체국(533-1001) ▶포천이동우체국(532-4500) ▶포천군내우체국(532-0006) ▶포천신북우체국(533-6001) ▶포천창수우체국(533-0001) ▶포천영중우체국(532-6500)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신궁한과

포천잣

육군 5군단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연말 불우시설 이웃돕기 일환으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소재의 도평 1·2리 노인정을 비롯하여 무의탁 장애인 보호시설인 '소망원'과 6. 25 및 월남전 참전용사 10여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라면 및 귤과 음료수, 주류 등 정성과 사랑이 담김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